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제 분석

김선정 · 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 교수

1. 머리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 등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교사 양성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한국어 국외 보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자의 수요가 급증하므로 이 시험의 응시자 수도 점점 증가하여 2010년에 치러진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는 2천 5백 명이 넘는 사람이 응시하였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가 되고, 나아가 한국어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평가 영역 및 하위 교과목별 평가 비중을 알아보고, 시험의 난이도 및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시험의 개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¹⁾ 2009년 시험의 주관 기관이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어, 2010년에 제5회 시험이 실시되었고, 2011년 10월 2일에 제6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 교사로서 알아야 할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포함한다.²⁾ 시험에 관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개요

교시	시험 영역	배점	문항 수	시험 시간
1교시	한국어학	90	60	100분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30	20	
2교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150	93 (주관식 1문항 포함)	150분
	한국 문화	30	20	

1) 2002년부터 2004까지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다가, 2005년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으로 개명되었다.

2) 필기시험 외에도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는 면접시험이 있다. 면접시험은 1인당 10분 내외로 진행되는데 전문 지식의 응용 능력과 한국어 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등을 평가한다. 면접 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으므로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시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 있는 주관식 한 문제를 빼고는 모두 사지선다형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제 분석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형식적인 면을 먼저 분석한 다음 평가 영역 및 하위 교과목별 평가 비중과 시험의 난이도, 문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문제의 형식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2교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수안을 작성하는 문제를 빼고는 100%가 사지선다형의 문제이다. 안타까운 점은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당시에 활용되었던 단답형의 문제, 발음 교육이나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 활용되었던 오디오 매체를 활용한 평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목적이 한국어에 관한 지식과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면, 오디오 매체를 활용한 평가와 단답형의 문제를 배제한 객관식 사지선다형의 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지문이나 답항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영역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 아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긋난 것은?’, ‘관계가 먼 것은?’,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등과 같은 부정 질문이 많다. 이와 같은 점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발견된다.

〈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긍정/부정 문항 수

영역	전체 문항 수	긍정 질문 수	부정 질문 수
한국어학	60	27	33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20	8	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93	53	39
한국 문화	20	9	11

특별히 한국어학 영역의 경우에는 ‘의미 관계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이나 ‘상징 범주가 다른 하나는?’, ‘밑줄 친 품사가 다른 것은?’,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른 하나는?’, ‘다음 합성 명사들 중 유형이 다른 하나는?’, ‘다음 형용사를 의미 유형별로 분류할 때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은?’, ‘언표 내적 효력(발화 수반력)이 다른 하나는?’, ‘반의 관계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등과 같이 네 개의 답항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묻는 문제가 14개나 출제되었다. 전체 문항 수를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는 문제의 지문에서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결과 지향 교수요목을 모두 고른 것은?’이나 ‘종합적 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식 스키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딕토글로스(dictogloss)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통제된 쓰기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쓰기 수업의 구성 원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과 같은 질문이 여덟 개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3.3.절

에서 살펴보겠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의 평균 난이도가 55.18인 데 반해 '모두 고르라'고 한 문제의 평균 난이도가 46.66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난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특정 사항에 대하여 지엽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하므로 수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질문과 답항의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가 많다. 이는 수험자들의 체감 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칫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가 있다. 특히 단순한 지식 설명형의 문제보다는 비판적 평가형이나 자료 활용형을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문제 유형의 특징 상 어쩔 수 없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질문의 지문과 답항의 길이를 짧고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2. 평가 영역 및 하위 교과목별 평가 비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영역으로 나누고, 하위 영역에 각 영역에 필요한 교과목을 명시하였다. 각 영역의 하위 영역과 교과목별 평가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한국어학 영역

한국어학 영역의 하위 교과목 중에서는 한국어 통사론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어 어휘·형태론, 한국어 음성·음운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규범의 순이다.³⁾ 박동호 외(2006)에 제시된 한국어학

3)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제1회부터 제4회까지의 한국어학 영역의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문법론(19.5문항, 32.5%) > 규범론과 사회 언어학, 의미 화용론(각 11문항, 18.8%) > 음성학과 음운론(7.2문항, 12%) 순이었다(박동호 외, 2006).

영역의 하위 영역 및 교과목별 평가 비중과 제5회 시험의 교과목별 출제 문항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학 영역 배정 및 출제 문항 수

과목	비율(%)	배정 문항 수	제5회 출제 문항 수
한국어학 개론	7	4.2	4
한국어 음성·음운론	15	9	8
한국어 어휘·형태론	20	12	12
한국어 통사론	26	15.6	14
한국어 의미론	7	4.2	5
한국어 화용론	10	6	6
한국어사	5	3	4
한국어 규범	10	6	7
총계	100%	60	60

박동호 외(2006)에서 제시한 배정 문항 수와 제5회 시험 출제 문항 수를 비교해 볼 때, 같거나 한 문제가 더 출제되었거나 덜 출제된 정도로 일치된다. 그러나 총론에 해당하는 한국어학 개론이 각론으로 세분되어 명시된 이상 한국어학 개론에 무슨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박동호 외(2006)를 보더라도 한국어학 개론의 내용에는 한국어 음성·음운론, 한국어 어휘·형태론, 한국어 통사론 등 모든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출제의 편의와 수험생을 위하여 한국어학 개론에 배정된 문제를 없애고, 하위 영역에 명시되지 않은 방언학이나 한국어 유형론과 같은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⁴⁾

기타 국어사, 국어학사, 방언학 등이 11문항, 18.3%였다. 분류 체계가 위의 〈표 3〉과 달라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통사론의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분야의 경우에는 언어학 개론이 하위 영역 없이 그대로 하나의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와 함께 대조 언어학과 심

3.2.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분야는 전체적인 비중이 다른 영역보다 낮은 편이나 다루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수험자에게 부담이 되는 영역이다. 아래 표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박동호 외(2006)에 따르면 언어학 개론과 대조 언어학에 관한 비중이 각각 40%와 30%로 동일 영역 내의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다. 제5회 시험에서는 언어학 개론에 관한 문제가 절반(20문제 중 10문제)을 차지하고 있고, 대조 언어학과 외국어 습득론이 각각 4문제씩 출제되었다. 박동호 외(2006)에 제시된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의 하위 영역 및 교과목별 평가 비중과 제5회 시험의 교과목별 출제 문항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 배정 및 출제 문항 수

과목	비율(%)	배정 문항 수	제5회 출제 문항 수
언어학 개론	40	8	10
대조 언어학	30	6	4
심리 언어학	10	2	1
사회 언어학	10	2	2
외국어 습득론	10	2	4
총계	100%	20	20

대조 언어학의 경우 구체적인 학습자의 오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 출제되고, 시험의 특성상 한국어와 특정 언어를 대조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섯 문제가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특히 심리 언어학과 사회

리 언어학, 사회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이 같은 층위의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학 영역과 같이 어떤 한 교과목이 같은 층위의 다른 교과목과 중복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언어학은 그 범위나 난이도에 비해 출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 수험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도전 의욕을 고취시키기보다는 ‘전략상 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3.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기능 교육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휘, 발음,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아마도 어휘 교육, 발음 교육, 문법 교육의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는 한국어학에서 다룰 수 있지만, 기능 교육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동호 외(2006)에는 없으나 특히 제5회 시험에서는 한자 교육론이나 한국어 번역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 이 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1], 즉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것은 한국어 교원 자격의 근거가 되는 ‘국어기본법’에 더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박동호 외(2006)에 제시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하위 영역 및 교과목별 평가 비중과 제5회 시험의 교과목별 출제 문항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 배정 및 출제 문항 수

과목	비율(%)	배정 문항 수	제5회 출제 문항 수
한국어 교육 개론	16	14	11
한국어 발음 교육론	6	6	7
한국어 문법 교육론	7	7	7
한국어 어휘 교육론	6	6	6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	9	9	9
한국어 듣기 교육론	9	9	8
한국어 읽기 교육론	9	7	9
한국어 쓰기 교육론	9	7	8

과목	비율(%)	배정 문항 수	제5회 출제 문항 수
한국 문화 교육론	5	5	4
한국어 교육 이론	4	4	4
한국어 교육 과정론	6	4	4
한국어 교재론	4	4	4
한국어 평가론	6	6	6
한국어 교육 공학	4	4	2
한자 교육론	·	·	2
한국어 번역론	·	·	1
총계	100%	92	92

한국어 교육 개론의 경우 배정된 문항 수보다 적게 출제되었는데 이는 ‘국어기본법’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출제된 한자 교육론이나 한국어 번역론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 교육 개론의 경우 한국어학 개론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교육 개론은 같은 층위에 있는 다른 모든 과목을 포괄하므로 이 교과목들과의 중복을 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 개론은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하지 말고, 한국어 교육 현황이나 ‘국어기본법’, 한국어 교사론 등과 같이 실제로 다루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3.2.4. 한국 문화

한국 문화 영역은 그 범위가 넓어 출제자들이나 수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동호 외(2006)에 제시된 한국 문화 영역의 하위 영역 및 교과목별 평가 비중과 제5회 시험의 교과목별 출제 문항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 문화 영역 배정 및 출제 문항 수

과목	비율(%)	배정 문항 수	제5회 출제 문항 수
일상 문화	30	6	7
예술 문화	30	6	5
한국 문학	20	4	4
한국 역사	20	4	4
총계	100%	20	20

일상 문화와 예술 문화의 비중이 각각 30%로 20%인 한국 문학이나 한국 역사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제5회 시험에서도 배정된 문항 수만큼 출제되거나 한 문제 정도 더 출제되거나 덜 출제되었다. 한국 문화 영역은 무엇보다도 다루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출제하기도 힘들고, 수험자들이 시험을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3.2.5. 교수안 작성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있는 유일한 주관식 시험으로 2교시 3영역에서 출제되는 12점 만점의 문제인데, 주어진 문법 항목으로 주어진 주제에 맞는 20분 수업용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제시’부터 ‘활용’ 단계에 이르는 수업의 전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제시’와 ‘연습’ 단계만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제5회 시험의 경우에는 ‘-(으)ㄴ 거예요’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구성하는 문제였다. 1급 수준의 문법 항목 중 주제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목표 문법으로 다루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한국어에 관한 지식만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한국어에 관한 지식을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교수안 작성 문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3. 시험의 난이도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전체 난이도의 평균은 54.25%였다.⁵⁾ 영역별 평균 난이도와 난이도에 따른 문제의 분포 현황에 관해 알아보자.

3.3.1. 영역별 평균 난이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중이 높은 한국어학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의 난이도는 평균에 가까웠다. 반면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 영역의 경우에는 난도가 평균보다 5% 이상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역 간 난이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제5회 시험의 영역별 평균 난이도이다.

<표 7>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별 평균 난이도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54.64	47.51	55.18	59.99

이를 다시 1, 2교시로 나누어 난이도의 평균을 알아보면 한국어학과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과 관련된 1교시의 난이도가 51.08%였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과 한국 문화 영역과 관련된 2교시가 57.59%였다. 이는 1교시 시험이 2교시 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5) 박동호 외(2006)에 따르면,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의 난이도는 제4회가 63.4%, 제3회가 63.3%, 제2회가 61.1%, 제1회가 62%였다. 이는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보다 다소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1회부터 제4회까지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통계 자료는 구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다.

3.3.2. 난이도에 따른 문제 분포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문제의 분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난이도별 문제 분포 현황

난이도 범위	1교시		2교시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10% 미만	·	·	1(1.08%)	·
10~20%	2(3.3%)	2(10%)	7(7.6%)	1(5%)
20~30%	11(18.3%)	3(15%)	7(7.6%)	4(20%)
30~40%	7(11.7%)	2(10%)	10(10.86%)	3(15%)
40~50%	8(13.3%)	3(15%)	14(15.21%)	·
50~60%	5(8.3%)	5(25%)	11(11.95%)	·
60~70%	8(13.3%)	·	12(13.04%)	3(15%)
70~80%	11(18.3%)	5(25%)	12(13.04%)	3(15%)
80~90%	5(8.3%)	·	11(11.95%)	4(20%)
90~%	3(5%)	·	7(7.6%)	2(10%)
총 문항 수	60(100%)	20(100%)	92(100%)	20(1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은 난도가 낮은 문제에서부터 높은 문제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데 반해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다. 특히 한국 문화 영역의 경우 중간 정도의 난이도(40~60%)에 해당하는 문제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5회 시험의 4개 영역 중 난도가 가장 높았던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문제는 난이도가 80%를 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난이도가 20% 이하인 문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 여덟 문제, 한국어학과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에서 각각 두 문제, 한국 문화 영역에서 한 문제였다. 그중에서도 제5회 시험에서 난도가 가장 높았던

(9.07%) 문제는 2교시 85번(A형)으로 문법 교육론과 관련된 자료 활용형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에 제시된 문법 교수 절차를 보고, 교사가 추론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의식 고양 활동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의식 고양 활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방식으로 묻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난도가 가장 낮았던(99.25%) 문제는 2교시 63번(A형)으로 어휘 교육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휘 게임을 구성할 때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을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이다. 문제의 수준을 높이며 동시에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4. 문제 유형

박동호 외(2006)에 제시된 문제 유형은 아홉 가지로 탐구 활동형, 지식 설명형, 비판적 평가형, 자료 활용형, 적용 응용형, 추론 및 원리 도출형, 영역 및 장르 통합형, 어구 해석형, 오디오 매체 이용형으로 나뉜다. 이중 오디오 매체 이용형은 발음 교육이나 말하기, 듣기 등 구어 교육에 활용이 되어 왔으나 제3회부터는 활용되지 않았다. 제5회 한국 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별 문제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

6) 문제의 유형을 결정하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능한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 8명에게 제5회 시험지와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담긴 자료를 제공해 주고 각자 각 문제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유형이 6명 이상 일치할 때는 그대로 따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100%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제5회 시험의 문제 유형에 나타난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3.4절은 박동호 외(2006)에서 제시한 문제 유형을 참고하여 제5회 시험에 나타난 특징을 기술한다. 이중 오디오 매체를 이용한 문제는 제3회 시험부터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표 9〉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별 문제 유형

문제 유형	1교시		2교시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지식 설명형	41(68.3%)	13(65%)	42(45.2%)	20(100%)
탐구 활동형	9(15%)	·	17(18.3%)	·
비판적 평가형	·	·	14(15.1%)	·
자료 활용형	1(1.7%)	·	7(7.5%)	·
적용 응용형	1(1.7%)	3(15%)	9(9.7%)	·
추론 및 원리 도출형	5(8.3%)	4(20%)	4(4.3%)	·
영역 및 장르 통합형	·	·	·	·
어구 해석형	3(5%)	·	·	·
오디오 매체를 이용한 문제	·	·	·	·
합계	60(100%)	20(100%)	93(100%)	20(100%)

영역별 문제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어학 영역은 지식 설명형 68.13% > 탐구 활동형 15%의 분포를 보이고,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은 지식 설명형 65% > 추론 및 원리 도출형 20% > 적용 응용형 15%의 분포를 보인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중 응용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수험자의 지식보다는 관련 지식을 실제로 현장에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 활용형의 비중이 낮고(45%), 탐구 활동형(18.3%)과 비판적 평가형(15.1%)도 다수 발견되는 데다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적용 응용형이나 자료 활용형, 영역 및 장르 통합형의 문제 유형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는 상당히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1. 지식 설명형

지식 설명형은 제시된 자료를 객관적 지식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고르는 유형으로 모든 영역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험의 난도를 높이거나 낮추기에 적합한 유형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식 설명형의 문제 유형이 4영역 평균 6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학이나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한국 문화 영역은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이 중 한국 문화 영역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지식 설명형의 문제였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 교원의 지식뿐만 아니라 적용이나 활용 능력까지도 평가해야 하는 시험이므로 지식 설명형 문제의 비율을 낮추고,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해야 할 것이다.

3.4.2. 탐구 활동형

탐구 활동형은 탐구 과정과 교수법을 적용하여 지도 방안을 도출하고 지도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이 유형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문제는 단순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응용 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5회 시험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 18.3%, 한국어학 영역에서 15%만이 출제되었을 뿐이다.

3.4.3. 비판적 평가형

비판적 평가형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내용이나 근거의 타당성, 자료의 정확성, 적절성 등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도출해 내는 유형이므로 지식의 정확성은 물론 논리적 추리력이 요구되는 유형이다. 지식을 묻는 문제이나 적용 능

력을 묻는 문제에 모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 제5회 시험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만 14문제(15.1%)가 출제되었을 뿐이다.

3.4.4. 자료 활용형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도출해 내는 유형으로 지식의 정확성은 물론 논리적 추리력이 요구되는 유형이다. 제5회 시험에서는 한국어학 영역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다.

3.4.5. 적용 응용형

적용 응용형은 교육 과정이나 교수요목, 교과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수업 과정에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따라서 한국어학 영역이나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한국 문화 영역보다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회 시험에서는 이 유형으로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 9문제가 출제되었다.

3.4.6. 추론 및 원리 도출형

추론 및 원리 도출형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의 원리를 적용하여 추론하거나 원리를 도출해 내는 유형이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문법 규칙을 단순히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원리를 과정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제5회 시험에서는 한국 문화 영역을 제외한 3개의 영역에서 각각 4~5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3.4.7. 영역 및 장르 통합형

영역 및 장르 통합형은 읽기와 쓰기 또는 말하기와 듣기,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 등과 같이 서로 관련이 깊은 영역이나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묻는 유형이다. 이는 불가피한 중복이 낳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영역 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이해력, 현장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통합적 판단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5회 시험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출제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영역을 나누어 출제를 의뢰하고, 영역을 나누어 선제 작업도 진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문제는 구어 교육 및 문어 교육, 이해 영역 및 표현 영역, 또는 한국어학적 지식이나 언어학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을 때나 한국 문화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물을 때, 통합적인 유형의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출제하는 일은 문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밀착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유형의 문제가 보다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출제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선제 작업 시 연관성이 높은 과목 간의 공동 작업을 권장하는 등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출제 및 선제 작업 지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3.4.8. 어구 해석형

어구 해석형의 문제는 주어진 어구에 관한 해석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 한국어학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제5회 시험에서는 한국어학 영역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다.

4. 맺음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평가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안 작성과 같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유형을 활용해야 한다. 지식 설명형의 문제보다는 적용 응용형이나 탐구 활동형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음 교수 능력이나 말하기, 듣기 등의 구어 교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디오 매체 활용형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영역을 재분류하여 하위 교과목을 설정하고, 교실 상황을 반영한 좀 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목 간의 통합 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학 개론이나 한국어 교육 개론이 갖는 포괄성으로 인해 같은 층위에 있는 타 교과목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사 등과 같이 한국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은 출제 영역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역 간의 난이도의 불균형을 가급적 줄이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이나 한국 문화 영역에 대한 비중이 낮고,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난이도를 설정해야 다른 두 영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두 영역에서 과락을 하여 시험에서 낙

방하는 일은 시험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이나 한국 문화 영역의 경우 수험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두 영역의 경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두 영역에 비해 훨씬 낮은 반면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출제자와 수험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국 문화의 경우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여겨도 될 정도로 명시된 범위가 넓다. 물론 문화가 갖는 의미가 광범위하고,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문화에 관한 지식이 무엇인지 한정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험자가 참고할 만한 문화 관련 서적이 마땅히 있지 않은 데다가 출제 영역까지 불분명하면 수험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 교사의 질을 제고하고,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투자로 문제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민현식 외(2001), 《한국어 교원 자격 인증 제도 시행 방안 개발 최종 보고서》, 한국어세계화재단.
- 민현식 외(2002),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평가 항목 개발 및 모의 평가 연구 최종 보고서》, 한국어세계화재단.
- 박동호 외(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항 개발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서경숙(2011),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박이정.
- 양명희(2005), 한국어 교사 인증 시험의 평가 원리와 실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5차 국제 학술 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병규(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과 그 운영 방안,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 조현성 외(2008),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2011), 《2010년 제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 문항 분석 현황표》.